

F.B.I EXECUTIVE REPORT

ON GLOBAL BUSINESS AND ECONOMY



Hanyang Univ. School of Business

FOREIGN BUSINESS INTELLIGENCE



Contents July 31, 2013

Biweekly Report

- 2** Google, Microsoft Earn Bronx Cheer From Wall Street as Stocks Slide
최진영, from TIME
- 4** Detroit Slides from Industrial Might to Bankruptcy
이은경, from Bloomberg Businessweek
- 6** China Targets Big Pharma
이상훈, from The World Street Journal
- 9** Where Have All the Burglars Gone?
김영은, from The Economist
- 12** 食药监总局：纯牛奶不得用奶粉冲兑
장혜진, from 新京报

Special Report

- 14** Indonesia's Palm Oil Industry Rife with Human-Rights Abuses
김윤희, from Bloomberg Businessweek

Google, Microsoft Earn Bronx Cheer From Wall Street as Stocks Slide

* 기사출처: [TIME \(2013.07.19\)](#)

* 요약자: 최진영(skyss92@hanyang.ac.kr)

* 키워드: 2분기 실적, 구글, MS

“부진한 성적을 기록한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상반된 전망”

□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MS)가 시장의 기대보다 크게 저조한 2분기 실적을 기록함

- 세계 IT 기업의 양대 산맥인 두 회사가 동시에 부진을 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
 - 구글의 2분기 순익은 97억 1000만 달러이며 주당 순익은 9.56달러로 시장 전망치인 주당 순익 10.80달러에 미치지 못함
 - MS의 해당 기간 순익은 199억 달러, 주당 순익은 66센트로 시장 전망치를 크게 밑돌음
- 이로 인해 두 회사의 주가 모두 시간 외 거래에서 4~5%가량(약 300억 달러) 하락함

□ 구글은 검색광고 부문의 성장이 둔화되어 실적에 악영향을 끼침

- 구글의 2분기 광고 유료 클릭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 증가했으나 전 분기 대비로는 4% 상승에 그침
- 광고 시장의 성장이 정체되면서 구글은 완전한 성숙기에 접어든 검색광고 시장 외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는 과제에 당면
 - PC 대신 모바일을 통해 구글을 이용하는 사람이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모바일은 PC에 비해 40%까지 광고 효과가 떨어짐

□ MS의 경우 PC 시장에서의 전반적인 부진이 실적에 영향을 끼침

- MS는 윈도우부터 엔터테인먼트 부문까지 5개 사업부 모두 부진

- 특히 태블릿 기기 개발에 9억 달러를 투자하며 기존의 주력 사업인 데스크톱 PC에서 포스트 PC 시대로의 전환을 꾀했지만, 큰 성과를 얻지 못함

□ **구글은 전 분기의 부진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큰 성장 잠재력이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음**

- 매일 150 만개의 안드로이드 기기가 활용되고 있고 지금까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된 앱의 수가 500억 개에 달함
- 구글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등 모바일 기기에서 새로운 광고수익을 창출할 가능성을 보유
 -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앞세운 모바일 중심으로의 전환이 순조롭다고 평가됨

□ **반면, PC 시장의 전반적인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MS는 상대적으로 부정적으로 전망 됨**

- 일부 전문가들은 MS가 모바일 네트워크 사업이 강세인 현 시장의 흐름을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
- 막대한 초기 비용을 투자해 태블릿 시장으로 진출했지만 시장으로부터 크게 평가절하 받는 등 미래에 대한 신뢰를 주지 못하는 상황

□ **구글과 MS 모두 산업 환경의 변화에 맞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

- 구글은 CPC(Cost Per Click)가 6% 떨어지면서 모바일로의 전환이 회사에 이익이 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됨
 - 소비자들은 점차 모바일 시장으로 이전되는데, 스마트폰 광고 단가가 여전히 PC의 절반 수준인 점이 큰 문제
- MS는 새롭게 진출한 분야인 태블릿 PC의 판매 부진이 이번 실적에 큰 영향을 미친 만큼, 애플 등 경쟁사들을 상대로 성공할만한 제품 개발이 필요 **FBI**

Detroit Slides from Industrial Might to Bankruptcy

* 기사출처: [Bloomberg Businessweek \(2013.07.19\)](#)

* 요약자: 이은경 (lee0705@hanyang.ac.kr)

* 키워드: 디트로이트, 파산 신청

“미국 최대 공업 도시인 디트로이트의 파산 신청과 이를 둘러싼 논란”

□ 미국 최대의 공업 도시였던 디트로이트시가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파산 신청을 함

- 디트로이트시는 제너럴 모터스와 포드, 크라이슬러 등 미국 3대 자동차 회사의 고향이자, 미국 공업의 상징이었음
- 그러나 지난 수십 년간, 디트로이트시는 은퇴 경찰관과 현직 도시 근로자들에게 채권 형태로 차입한 수십억 달러를 갚지 못하는 상태였음
- 지난 18일 릭 스나이더 미시간 주지사는 파산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는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채무 규모로 추산됨
 - 관계자는 디트로이트의 빚이 180억 달러에 달한다고 밝힘

□ 디트로이트시는 거대 규모의 자동차 회사들과 시 주민들의 이주로 20세기 중반 이후 계속 하락세를 보임

- 1950년에 비해 제조업 종사자의 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이에 따라 인구수 역시 급감함
 - 1950년에 최대 185만 명에 달했던 디트로이트시의 인구는 현재 약 70만 명으로 감소
- 2011년 인구 조사에 의하면, 디트로이트시 주민의 36% 이상이 가난한 상태
 - 주 전체의 가구 평균 수입은 4만 9,000달러에 달하지만, 디트로이트의 수입은 2만 8,000달러가 채 안 됨


□ 파산을 신청하기 전에 디트로이트시는 공공사업과 관련된 채무를 모두 갚을 것이라고 공표함

- 디트로이트시의 전체 부채 중 수도세와 하수세는 약 54억 달러 이상일 것으로 추정됨
- 공공 사업과 관련된 채권은 상황이 가능한 수준인 것으로 추정됨

□ 그러나 디트로이트시는 연금에 대한 지급은 축소할 것이라고 밝힘

- 일시 차입된 연금 채무는 35억 달러에 이룸
 - 이는 가장 큰 무담보 채권자인 통상적인 퇴직 연금 제도(약 20억 4,000만 달러)와 경찰과 소방관의 퇴직 연금(14억 4,000만 달러)를 합한 규모
- 디트로이트시는 총 110억 달러를 빚진 연금 수혜자들에게 그들의 빚을 전부 탕감해주는 조건으로 20억 달러만 받을 것을 요청하며 그들의 혜택을 줄일 것을 공표함
 - 20억 달러에는 무담보 공채가 포함되어 있으며 연금과 건강관리 및 전, 현직 시 직원들에게 빚진 여러 채무가 해당함

□ 연금 혜택을 줄이겠다는 시의 주장이 법적으로 실현 가능한 상황에서, 연금 수혜자들은 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함

- 연방 파산법 9조에 의해, 시는 법원에 채무를 없애는 조정 계획을 승인하도록 설득하여 채권자들에게 손실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할 수 있음
- 이에 디트로이트 연금 수혜자들이 미시간 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고 판사는 주 정부에게 파산보호신청 절차를 중단하라고 명함
 - 담당 판사는 연금 제도의 재정적 혜택을 저해하거나 은퇴자들이 어떤 방식으로든 손해를 보게 하는 조치는 주 헌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함
- 그러나 디트로이트시는 파산보호신청이 현 상황에서 적합한 조치라고 주장하며, 법정에 오는 8월 19일을 이 조치에 대한 반대 신청의 마감기한으로 정해달라고 요청함 

China Targets Big Pharma

* 기사출처: [The World Street Journal \(2013.07.16\)](#)

* 요약자: 이상훈 (hooney704@hanyang.ac.kr)

* 키워드: 헬스케어, 부패, 뇌물

“헬스케어 산업에서의 부패근절을 위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 중국 정부”



- 최근 중국 공공안전국의 경제범죄조사부는 영국계 다국적제약회사인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의 임원진을 중국사업부 고위급 임원들에게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체포
 - GSK는 더 비싼 가격에 더 많은 약품을 팔기 위해 여행사를 이용하여 공무원, 병원, 그리고 의사들에게 뇌물을 줌
 - GSK의 고위급 임원들이 세우는 판매 및 마케팅에서의 핵심 전략이 상업 뇌물수수를 공모하고 장려하는 것일 정도로 부패가 만연한 상황
- 현재 중국에서는 개인의 소득이 높아지면서 헬스케어 산업이 급속히 부상하고 있는 상황
 - 컨설팅 업체 맥킨지앤코에 따르면 중국의 헬스케어 지출은 2020년경에 1조 달러로 세 배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측

- 한 시장조사 전문기관에 의하면 중국 내 약품 매출은 지난해 전년 대비 18.2% 증가한 820억 달러를 돌파

□ 또한 중국은 GSK와 같은 다국적기업들에게 가장 중요한 시장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음

- 대부분의 제약회사들은 미국과 유럽에서는 매출이 부진하거나 감소 추세에 있음
 - 지난해 약품 및 백신 매출은 유럽서 50억, 미국에서 70억 파운드로, 각각 7%, 2% 감소한 수치
- 이에 따라 제약회사들은 미래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중국과 신흥시장에 의존하는 상황
 - 중국시장에서 약품 및 백신 매출은 7억 5,900만 파운드로 17% 증가
 - 현재 6개 공장 및 연구소에 5,000여명의 직원을 두고 있음

□ 그러나 업계 관계자들은 중국의 헬스케어 분야가 구조적으로 부패의 늪에 빠져 있다고 지적

-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의 헬스케어 산업 개혁에 가장 큰 걸림돌이 업계에 만연한 부패라고 진단
- 기업 입장에서는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여행사를 중개기관으로 이용
- 의사는 낮은 임금을 보충하기 위해 기업과 중개기관이 제공하는 뇌물을 받음


□ 중국 정부는 부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나섰지만 서구의 뇌물 반대자들은 그 실효성을 회의적으로 전망

- 최근 몇 년 사이 중국은 기업 뇌물수수를 단속하기 위한 법을 제정했지만 실제로 기업들에 영향을 끼친 조사는 없었음
 - 2010년 호주인 다국적 광산업체 간부에게 뇌물수수와 중국의 상업기밀을 훔친 혐의로 10년 징역형을 선고한 유죄판결만이 유일한 선례
-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는 헬스케어 산업을 기점으로 수익성이 높은 제약 및 의료 시장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시행할 예정

□ **한편 GSK는 뇌물 혐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중개기관과의 관계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발표**

- 조사에서 밝혀진 여행사들의 이용을 중단하고 그 동안의 여행사들과 자금거래를 철저히 검토하고 있음
- 전 직원에게 중국 법을 존중하고 준수하도록 강하게 당부함
- GSK는 2004년과 2010년 사이 승인 받지 않은 약 처방을 받고자 의사들에게 뇌물을 공여한 중국 영업부 직원들에 대해서도 자체 조사를 벌이고 있음

□ **미국 당국 역시 최근 들어 다국적 기업들의 중국 내 부패활동에 대한 조사를 강화함**

- 2010년 이래 미 법무부와 증권거래위원회(SEC)는 GSK와 같은 제약회사들이 중국을 포함 10여개 나라에서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했는지를 조사
- 해외부패방지법(FCPA)하에서 의사와 국영병원 직원들도 공무원으로 간주되며 이들이 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해 조사 

Where Have All the Burglars Gone?

* 기사출처: [The Economist \(2013.07.20\)](#)

* 요약자: 김영은 (kye9242@hanyang.ac.kr)

* 키워드: 선진국, 범죄율 감소

“경제 침체 속에서도 감소하고 있는 선진국의 범죄율의 원인”



□ 높은 실업률과 장기적 경제 침체 속에서도 선진국의 범죄율이 줄어들고 있음

-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사람과 재산을 노린 범죄가 지난 10년 동안 줄어들고 있음
 - 미국은 1991년부터, 영국은 1995년도부터 범죄율이 감소하기 시작함
 - 프랑스에서는 재산범죄가 2001년까지 증가했지만, 그 이후로 3분의 1로 줄어들음

□ 범죄율 감소의 가장 큰 원인으로 16세부터 24세까지의 인구의 감소가 제시됨

-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일어난 베이비붐은 16세부터 24세까지 인구를 급증시켰는데, 대부분의 범죄가 이 연령대의 사람들에 의해 범해졌음
- 인구 고령화 현상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이 연령대의 인구가 감소했고, 이는 범죄

을 감소로도 이어짐

- 그러나 특정 연령대의 인구 감소만으로 범죄율 감소를 설명할 수는 없음

□ 많은 범죄자를 투옥시켰기 때문에 범죄가 감소했다는 주장도 존재

- 영국에서는 1993년과 2012년 사이에 교도소 수감자 수가 두 배로 증가했고, 호주와 미국에서도 두 배 가까이 증가
- 하지만 캐나다, 네덜란드, 에스토니아를 포함한 몇몇 국가들은 수감자 수를 줄여 나가는 와중에도 범죄율이 급증하지 않음

□ 범죄 예방을 위한 정책과 범죄 수사 기술의 발전도 범죄가 감소한 원인

- 1990년대에 미국의 대도시 중 일부가 데이터에 기반한 “범죄분석예측시스템” 정책을 채택하고, 경찰 인력을 크게 증대
 - 이후 뉴욕 로어 맨해튼의 Canal Street 주변 지역에 살인율은 1990년에 주민 10만 명당 29%에서 2009년 약 1.5%로 떨어짐
- DNA 검사의 도입, 휴대전화 위치정보와 감시카메라 같은 기술의 발전이 범죄 수사의 효율성을 높임

□ 높아진 교육수준과 약물 사용의 감소가 범죄율 감소에 영향을 미침

- 요즘 젊은 세대들은 부모와 함께 사는 경향을 보이며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아 일탈을 할 확률이 상대적으로 낮음
 - 유럽국가들에서 살고 있는 18세에서 24세까지의 세대는 10년 전 세대보다 불법 약물이나 술을 마시려는 시도를 덜하는 성향을 보임
- 미국에서는 1990년대의 크랙, 코카인 등의 마약 사용이 감소하면서 범죄가 감소

□ 도난방지 시스템, 사설 경비 산업의 발달 역시 범죄를 억제하는 요인으로 꼽힘

- 수십 년 동안 사람들은 범죄를 대비해 도난 경보기, 창문 자물쇠와 대여금고 등을 설치함
 - 1995년과 2011년 사이에 영국 가정집의 도난경보기 설치율은 29%로 증가

- 상점들 역시 도난방지시스템을 설치하고 어느 때보다 많은 경비원을 고용하여 보안에 많은 투자를 함
 - 유럽에서 사설 경비원의 수는 10년 전보다 90% 증가하였으며, 이는 경찰관 수를 넘은 수치임

□ 모든 부분에서의 범죄율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지만, 강력 범죄들이 감소하는 추세

- 성범죄를 비롯해 제대로 신고되지 않는 금융사기, 전신송금사기, 개인정보유출 등의 범죄는 여전히 급증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
- 하지만 이전과 달리 선진국에서의 조직 범죄는 덜 폭력적인 양상을 띠면서 살인이나 강도 같은 강력범죄가 줄고 있음

□ 이러한 현상은 세계경제의 불황 여부에 상관없이 이어질 것으로 보임

- 범죄자들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수가 적고 늘어가고 있음
- 가장 심각한 경제 침체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경향은 지속되고 있으며, 세계경제가 회복할 때에도 범죄는 계속해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FBI**

食药监总局：纯牛奶不得用奶粉冲兑

* 기사출처: [新京报 \(2013.5.10\)](#)

* 요약자: 장혜진 (skylinda89@hanmail.net)

* 키워드: **가공우유, 분유**

"중국 내 분유를 이용한 가공우유를 둘러싼 논란"

□ **중국의 한 유업 전문가는 중국에서 생산된 우유의 60%가 생우유가 아닌 가공우유라고 밝혔으며, 이 소식은 유제품 시장에서 논란을 일으킴**

-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중국의 분유 수입은 3만에서 9만톤 사이를 웃돌았으며 작년에는 수입량이 60만톤에 달함
- 몇 년 사이에 수입량은 약 10배 증가했으며 수입된 분유는 대부분 우유를 만들기 위한 원료로 유통됨
- 많은 유업 관계자들은 상온에서 보관되는 우유 대부분에 분유 성분이 들어갔다고 주장함

□ **분유를 가공하여 우유를 생산하는 원인은 원유의 부족분을 메꾸기 위함**

- 많은 중소기업과 대기업들이 국외의 저렴한 분유를 구매하며, 이 과정에서 값싸고 질이 낮은 분유도 같이 들어오게 됨
- 그러나 가공 과정에서도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경제적 효율이 높지만은 않음
 - 2009년 이전에 수입되는 분유에는 3만 위안의 자본금이 들었지만, 국내의 원유에 투입되는 자본금은 이를 초과하지 않음

□ **중국 국가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안전표준기준'에서 생우유의 경우 분말을 원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하며 그 외의 다른 식품 첨가물을 첨가해서도 안 된다고 규정함**

- 유제품 품질안전 감독관리 규정에 따라 가공 처리가 들어간 경우 '가공우유'라고 표시해야 함
- 국가식품의약품안전청은 분말로 생산한 우유의 경우 겉표지에 '분말우유'라고 명


확하게 표시해야 하며, 생우유의 경우 분말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

- 원료를 정확하게 표시하지 않은 경우는 불법

□ 반면, 전문가들은 60%의 우유가 분유를 사용했다는 주장은 과장이라고 반박

- 분유가 불법적으로 우유 생산에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그렇게 생산된 우유는 중국 내 총 우유생산량 2,000만톤 중 극히 적은 비율을 차지함
- 산업 관계자에 의하면, 유업 내에서 분유를 사용하는 불법적인 생산 방식은 존재하지만, 60%의 우유가 분말을 사용해서 생산된다는 것은 터무니없이 과장된 것이라 주장함
 - 작년에 수입된 분유의 60%가 신생아를 위한 분유였으며, 나머지 약 20만 톤이 유제품생산, 조절가공상품과 같은 가공식품에 사용되었다고 밝힘

□ 논란이 지속됨에 따라 정부는 해당 부분에 관한 사실 여부를 조사할 예정

- 관계자는 인터뷰에서 "해당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조사를 해볼 것이며, 정확히 한 수량과 유통 과정을 조사한 후, 이는 정부에서 발표해야 할 것"이라고 밝힘 

Indonesia's Palm Oil Industry Rife with Human-Rights Abuses

* 기사출처: [Bloomberg Businessweek \(2013.07.18\)](#)

* 요약자: 김윤호 (yhhkim3937@hanyang.ac.kr)

* 키워드: 야자유, KLK, 중국

“거대 야자유 생산 기업에 의해 행해지는 인권 유린의 실태와 전망”



□ 전 세계적으로, 특히 중국에서 야자유 소비량이 대폭 증가함

- 야자유와 그 첨가물이 전 세계적으로 수천 가지의 상품에서 사용되고 있음
- 특히 야자유를 식용유나 국수를 만들 때 주로 사용하는 아시아의 수요가 야자유 산업을 크게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됨
- 중국은 세계 최고의 식물성 기름 소비국이며, 야자유는 여러 식물성 기름 중 세계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는 종류임

□ 한편 야자수 재배장 근로자의 상당수가 어린이이며, 이를 대상으로 한 인권 유린이 만연해 있다는 것이 알려짐

- 관련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야자유 산업은 유럽과 미국 환경 운동가들의 조사대상이 됨
- 조사 결과 근로자들 상당수가 어린이들이었으며, 그들은 위협, 학대받는 상태였고 이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특히 KLK라는 거대 야자유 기업 내에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갖가지 횡포가 자행됨

- KLK(Kuala Lumpur Kepong)는 세계에서 가장 큰 야자유 공급 업체 중 하나
- 그들은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속여 노예 계약을 체결했으며, 산재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의료조치마저 거부함
- 근로자들이 도망가는 일이 빈번하며, 만약 이들이 잡힐 경우 다른 근로자들이 보는 앞에서 폭행하는 등 인권 유린의 정도가 갈수록 심각해짐

□ RAN(열대 우림 행동네트워크)에서 이러한 실태를 고발하자, KLK는 뒤늦게 조치를 취함

- RAN에서 이 같은 KLK의 행태들에 대해 보고하자, 뒤늦게 KLK의 관리인이 RAN 조직에 접근
- 이어 그들은 기존에 벌어졌던 학대의 실상에 대해 일찍이 잘 알지 못했다면서 사죄의 뜻을 밝힘
- 또한 근로자들이 고향으로 귀환하는 데 필요한 경비 일체와 체납된 임금을 보상해 주기로 합의함

□ 그럼에도 KLK의 근로자에 대한 처우에는 큰 변화가 없음

- 고발 당시에 KLK에 소속되었던 당시 관리인들이 여전히 근로자들을 모집하고 관리하는 모습이 포착됨

- Bloomberg Businessweek가 올 봄에 농장을 다시 방문했을 때, 어린이들의 노동력 착취와 임금을 속이는 행위가 여전히 재현되고 있음이 확인됨

□ 여러 지적에도 KLK는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고 문제를 덮기에 급급함

- KLK는 결코 노동자들을 규제하고 학대한 적이 없었다고 주장함
- 그러나 그들은 야자수 재배장에서 벌어졌던 이전의 학대 행위에 대해 지방 당국에 보고하지 않았고, 그 문제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핑계를 대는 중

□ 또한, 야자유 생산 과정의 문제가 심각한데도 쉽게 고쳐지지 않고 있는 실정

- 열악한 생산 환경이 이미 고질화된 상황
- RSPO가 생산 환경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지만 실상 그들은 비양심적인 생산자에 대해 아무런 제재도 가하지 않는 이중적 태도를 보임
- 소비자들은 생산 과정에 대한 경각심이 없어서 생산자에게 아무런 압박을 가하지 않음

RSPO (Roundtable on Sustainable Palm Oil)

지속 가능한 야자유 상품들의 성장과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2004 년에 만들어진 비영리, 시장 주도의 단체이다. 2012 년 현재 50 개국에 걸쳐 1000 여명의 일원이 가입되어 있다. 야자유 생산자부터 유통업자, 야자유 제품 제조자, 투자자, 그리고 환경보호 NGO 등이 그들의 회원이다. RSPO의 상표는 제품의 합법적이고 환경 친화적인 생산 과정을 보증한다.

출처: 위키피디아, RSPO 홈페이지

□ 한편 기름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 몇 가지 담론이 제기됨

- 야자유 생산업자들은 생산되는 기름이 합법적이고 경제적으로 실현 가능하며 환경적으로도 적합하고, 관리와 운영이 사회적으로 유익한 상품인지에 대해 제3자의 평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합의함
- 일부 영리 목적의 RSPO 일원들은 2015년까지 오직 지속 가능한 야자유만을 판

매하기로 약속함

□ 또한, 최근 중국인들 사이에서 일부 변화의 가능성이 감지되면서, 향후 이 문제의 귀추가 주목됨

- 중국인의 44%가 환경 친화 제품을 사기 위해 지금보다 더 많은 돈을 기꺼이 투자할 용의가 있다고 답함
- 중국 소비자들이 환경 문제를 인식하기 시작하여 앞으로 노동 환경에 대한 인식 발전이 기대됨 FBI

FBI는 한양대 경영대학의 비상업적 지식봉사 동아리로, 본 보고서는 글로벌 경제/경영 이슈에 대한 교내 상호 학습을 위해 동아리 학생들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만약 외부에서 보고서를 요청하는 경우, 교외 지식봉사차원에서 무상으로 공유하고는 있으나 다른 상업적 용도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보고서 구독신청 및 변경 (fbi.hanyang@gmail.com)

Advisor: 이웅희, 한양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victory@hanyang.ac.kr)

Editor in Chief: 김주찬 (kjcjuchan@hanyang.ac.kr)

Associate Editor: 김시연 (rea1200@hanyang.ac.kr)

Copy Editor: 전주영 (junjy9111@hanyang.ac.kr), 박인철 (star11kers@hanyang.ac.kr)